

▶ 정답 및 해설

1. 다음 어느 국가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국가를 옳게 설명한 사람을 고른 것은?

영역에는 고구려 유민과 원래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말갈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갑	중앙 정치 조직은 당나라 제도를 수용하여 2성 6부제를 운영하였다.
을	말갈을 복속하고 고구려 옛 땅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병	독자적인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	고구려를 계승하여 주작대로를 건설하였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은 발해에 대한 설명이다.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 발해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발해 문왕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는 '고려국왕'을 자처하였다. 선왕대 이르러 당시 중국은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①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였지만, 3성의 독특한 운영 방식과 유교적 성격의 6부 명칭에서 발해의 독자적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③ 영락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이다. ④ 주작대로는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다음 제시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구덩을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 ① 원시적인 농경 사회가 시작되었다.
- ② 무덤 양식으로는 독무덤 양식이 등장하였다.
- ③ 펜식기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 ④ 족장이 출현하여 스스로 선민사상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신석기 시대의 집자리에 대한 설명이다. 신석기 시대 유물 가운데 탄화된 좁쌀(조·피·수수) 등은 이 시기에 잡곡류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식량 채집 단계에서 식량 생산 단계로의 변모를 의미한다. ② 독무덤 양식은 철기 시대에 등장하였다. ③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

명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④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3. 다음 중 고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원효는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② 소수림왕은 태학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 ③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하고 유학과 함께 산학을 가르쳤다.
- ④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기도 하였다.

(정답) ①

(해설) <화엄일승법계도>는 진골 출신인 의상이 당에 유학, 지엄에게서 수학하고 돌아와 저술한 것으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4. 다음은 조선 초기의 두 정치 세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ㄱ) 성리학 이외 불교·도교·풍수지리·민간신앙을 포용하였다.
 (ㄴ)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이단으로 배격하며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 ① (ㄱ) - 관학파의 주장을 계승하였다.
- ② (ㄱ) - 척신정치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 ③ (ㄴ) - 사학파를 계승하였으며 의리와 왕도정치를 주장하였다.
- ④ (ㄴ) - 성종 무렵 처음 등용되어서 선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에서 (ㄱ)은 훈구파(관학파), (ㄴ)은 사림파(사학파)에 대한 설명이다. 척신 정치란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명종이 되면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이에 외척 세력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정권을 주도한 정치를 말한다. 이 때 척신 정치를 옹호하는 세력은 기성 사림으로, 이후 청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기성 사림과 신진 사림 간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5. 다음 지도의 (가)와 (나) 국가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제사장인 천군이 관할하던 지역을 소도라고 불렀고 신지·건지 등이 정치적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 ② (나) - 특산물로 말, 주옥, 모피가 생산되었다.
- ③ (가) - 부족장을 가(加)라고 불렀으며 왕권이 미약하였다.
- ④ (나) - 씨족사회의 풍습으로 족외혼이 이루어졌다.

(정답) ③

(해설)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이다.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

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로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① 삼한, ② 부여, ④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6. 다음의 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죄수의 심의뿐이었다.

-<○○실록>-

- ① 사병을 혁파하였다.
- ②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였다.
- ③ 왕실과 종친들을 등용하였다.
- ④ 유향소를 복립하였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에서 '6조에 귀속시켰다'는 표현은 6조 직계제의 시행을 말하며,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죄수의 심의뿐이었다'는 표현은 의정부의 권한 축소를 말한다. 6조 직계제는 6조가 모든 정무를 왕에게 직접 고하고 왕명을 집행하는 정치 형태로, 제시문은 태종의 업적에 대한 설명이다. 태종은 집권 당시 사병을 혁파하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②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③ 태종은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는 한편, 왕실 외척과 종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④ 유향소를 혁파하고, 이를 대신해 각 고을에 유향품관으로 1인의 신명색을 두어 지방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수령을 돕게 하였다. 나아가 이들에게 수령의 비행을 직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7. 다음의 이론을 지향한 인물로 옳은 것은?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나라의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지만 정신만은 독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통사>-

- ① 한민족의 역사는 주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에 종속되어 전개되었다.
- ② 손진태 등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연구를 위해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 ③ 우리나라도 세계사와 동일하게 고대·중세 등의 발전 과정을 겪었다.
- ④ <조선사연구초>를 지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조선역사 1천년 이래 제1대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한국통사>는 민족주의 학자인 박은식의 저서이다.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일제의 불법적인 한국 침략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런 역사와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하여 혼이 담겨 있는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④ 신채호에 대한 설명으로,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등을 저술하여 주체적으로 한국사를 정리함으로써 민족주의 역사학을 확립하였다. ①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한 타율성론에 대한 설명이다. ② 진단 학회는 청구 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 어용 학자들의 왜곡된 한국사 연구에 반발하여 이윤재, 이병도 등이 조직한 학회로, 실증 사학을 지향하였다. ③ 사회 경제 사학은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식민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으며,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정신 사관을 비판하였다.

8. 다음의 국왕에 해당되는 업적만을 옳게 묶은 것은?

그는 중국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를 중용하여 과거제도를 시행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기회를 얻었고, 충직하고 어진 사람을 모함하고 종이 그 상전을 고소하며 자식이 그 부모를 참소하는 행태가 벌어졌다고 하였다.

- ㄱ. 거란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광군을 조직하였다.
- ㄴ. 광덕·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ㄷ.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로 몽진하였다.
- ㄹ.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 ① $\neg$, $\perp$
② $\neg$, $\top$
③ $\perp$, $\exists$
④ $\top$, $\exists$

(정답) ③

(해설) 제시문에서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 광종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광종은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황제라 칭하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노비들이 양인이 되어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이 보다 안정되었다. ㄱ. 정종, ㄴ. 현종에 대한 사실이다.

9. 조선의 유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이황은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는 정신과 물질을 이원화시켜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 (㉡) 이이는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여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이는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① (ㄱ) - 지방을 통해할 목적으로 향약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ㄱ) - <주자서절요>를 저술하였다.
- ③ (ㄴ) - 관념적 도덕세계와 동시에 경험적 현실세계를 중시하였다.
- ④ (ㄴ) - <동호문답>, <성학집요>를 저술하였다.

(정답) ①

(해설) 조선의 향약은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신분을 중시함으로써 질서 유지에 더욱 알맞도록 구성한 것이다. 즉 사림의 주도하에서 민간 자치적으로 시행되는 형태였다. 이황은 예안향약을 통해 주민들의 상부상조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② 이황은 <주자서절요>를 저술하여 일본 성리학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이이는 주기론의 입장에서 관념적 도덕 세계를 중요시하면서도 현실적·개혁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④ 이이는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왕도 정치의 구현과 현실 문제인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또한 <성학집요>의 저술을 통해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다음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중임제한 철폐 조항을 명시한 개헌안을 반올림을 내세워 통과시켰다.
 ㄴ.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ㄷ.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ㄹ. 마산에서 시위 도중 숨진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바다에 떠오르면서 촉발되었다.

- ① ㄴ-ㄱ-ㄷ-ㄹ ② ㄱ-ㄷ-ㄹ-ㄴ
 ③ ㄴ-ㄷ-ㄹ-ㄱ ④ ㄱ-ㄷ-ㄴ-ㄹ

(정답) ②

(해설) ㄱ. 이승만 정부의 2차 개헌(1960) → ㄹ. 4·19 혁명(1960) → ㄷ. 유신 헌법(1972) → ㄴ. 전두환 정부의 출범(1981)

11. 다음의 선언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15 공동 선언-

- ①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② 서울과 평양에 상설 직통 전화가 개설되었다.
 ③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이루어졌다.
 ④ 금강호를 통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정답) ①

(해설)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공동 선언(2000)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이후 한반도 안에서 탈냉전과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개성공단 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경의선 복구 사업 등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1972), ③ 1985년, ④ 1998년

12.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女紅)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工匠: 수공업자)이 도야(陶冶: 기술을 익힘)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사농공상의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북학의〉-

- ① 신분에 맞게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②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과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였다.
 ③ 토지를 정자(井字)로 구분한 뒤 1구역은 공동으로 수확하여 세금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하였다.
 ④ 청나라와의 통상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선을 활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은 중상학과 박제가의 주장에 대한 내용이다. 박제가는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① 유형원, ② 박지원, ③ 정약용의 정전제에 대한 설

명이다.

13. 다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며 국풍과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 전투에서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여 조선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즉 유교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와 반대로 묘청이 승리했다면 독립적 진취적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니, 이 사건을 어찌 1천년래 조선사의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않으랴.”

-<조선사 연구초>-

- ①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였다.
- ③ 몽골은 고려의 고유한 주권과 풍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④ 진골 귀족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신채호가 저술한 <조선사 연구초>에 대한 일부 내용으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관한 설명이다. 이 사건으로 문벌 귀족 세력의 강화와 승문천무 현상으로 무신 정변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14. 다음 제시된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혜공왕 780년 본기에 적힌 바에 의하면,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4월에,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병력을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왕비는 난병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삼국사기>-

- ① 6두품 세력은 왕권과 결합하여 귀족을 견제하였다.
- ② 상대등보다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 ③ 지방의 호족과 6두품이 연계되어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 ④ 강한 권력을 장악한 왕은 귀족세력을 숙청하였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사건은 김지정의 난에 대한 내용이다. 어려서 왕위에 오른 혜공왕은 성장한 뒤에도 국정을 돌보지 않고 유흥에 침혹하자, 김지정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흥흥한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켜 혜공왕과 왕비를 죽였다. 김지정의 난은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왕위는 김양상에게 돌아갔는데 그가 신라 37대 왕인 선덕왕이고, 그 뒤를 이어 김경신이 38대 원성왕이 즉위하였다. 즉 김지정의 난 이후 신라 하대의 상황이 전개된 시기로, 신라 하대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6두품 출신의 일부 유학생과 선종 승려 등은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교 정치 이념과 과거 제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진골 귀족에 의해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은거하거나,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15. 다음 시기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명분으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동화시켰다.
(나) 일본 황제 폐하에게 충성을 다하자는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였다.

- ① 태형령이 발표되어 조선인에 한해 적용되었다.
- ② 회사 설립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 ③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의 신문 발행이 허가되었다.
- ④ 일제에 의해 조선어학회가 해산되었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에서 (가)는 내선일치론, (나)는 황국 신민 서사 암송에 대한 내용으로,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한다. 일제는 1940년대 초 조선어 학회를 독립 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회원들을 체포·투옥하고 마침내 강제 해산하였다(1942년). ①, ② 무단 통치기, ③ 문화 통치기에 대한 내용이다.

16.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 소민이 건디기 힘든 폐단은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물화를 모두 막아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으로, 백가지 물종이 다 한곳으로 귀속되니, 다른 사람들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 ① 민호 단위의 특산물 징수방식이 토지 결수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 ② 광작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층의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 ③ 향·소·부곡민들의 처지는 농민들에 비해 열악하였다.
- ④ 광산 개발을 위해 덕대·물주 등이 등장하였다.

(정답) ③

(해설) 조선 후기 공인들은 서울의 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장시를 중심으로도 활동하였고,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까닭에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시문은 조선 후기 도고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다. 향·소·부곡은 조선 초기에 면·리·통으로 편입되었다.

17. 다음 중 고려시대 농업과 상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 ①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이 활성화되었다.
- ② 경시서를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 ③ 강화도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④ 밭농사에서는 농종법에서 건종법으로 바뀌었다.

(정답) ③

(해설) 13세기 고려의 강화 천도 시기에 강화도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간척 사업이 추진되어 체포와 와포에 독을 쌓아 좌둔전을, 이포와 초포를 막아 우둔전을 만들었다. ① 고려 말에는 남부 지방 일부에서 모내기법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조선 시대이다. ② 경시서는 물가 조절 기관이 아닌, 매점매석과 같은 상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이었다. ④ 조선시대의 사실이다.

18. 다음 중 대한민국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한 후 소련은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시행하자고 유엔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였다.

- ② 소련은 유엔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하였고 유엔 소총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 ③ 소련과 북한은 한국 임시 위원단의 방북 요청을 승인하고 38도선을 개방하여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활동을 지원하였다.
- ④ 1947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를 시행하였다.

(정답) ④

(해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유엔은 한반도에서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 수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에 선거를 통해 통일된 독립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소련은 남한까지도 공산화하려 했기 때문에 이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절하였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정하였다. ①, ②는 소련이 아닌 미국의 주장이다. ③ 북한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방북을 거부하였다.

19. 다음의 가상신문에서 언급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반란군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자 일본인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습격받은 일본인들은 살기 위해서 궁(宮)으로 들어갔는데 그 궁(宮)마저도 반란군의 무리가 많이 모여 있었다. 지금 현재 한국은 무정부 상태이다.
- 1882년 6월 9일 -

- ① 일본군의 궁궐 침입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
- ②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어 청의 종주권이 인정되었다.
- ③ 조·일 무역규칙이 체결되었다.
- ④ 청·일 양국군대의 공동 철수와 파병 시 상호 통보 사항에 합의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사건은 임오군란이다.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면서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허용하게 되었고,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되었다. 즉 조선은 '속방'으로 규정하여 그동안의 형식적 종속 관계를 실질적 관계로 강화하였다. 또 치외법권, 청 상인의 서울과 양화진 개시, 내지 통상권, 연안 어업권, 무역권을 명시하였으며, 청국 군함의 항해권도 규정하였다. ① 을미사변, ③ 강화도 조약, ④ 갑신정변 이후의 사실들이다.

20. 다음은 국권 피탈 과정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가) 일본의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이 파견되어 고문통치가 시작되었다.
(나) 일본인 차관이 재정을 장악하는 차관통치가 실시되었다.
(다)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가) -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었다.
- ② (나) -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파견되었다.
- ③ (다) -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었다.
- ④ (가)-(나)-(다)의 순서로 체결되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에서 (가) 정미 7조약(1907), (나) 1차 한·일 협약(1904.8), (다) 한·일 의정서(1904.2)이다. 일제는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후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대한 제국은 양국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